영어어문교육 *제29권* 2호 2023 여름
https://doi.org/10.35828/etak.2023.29.2.61

교양영어 수업에서 번역기를 사용한 대학생의 경험 및 인식*

오희정
(서울여자대학교)

Oh, Hee Jeong. (2023).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using machine translators in a general English clas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9*(2), 61-83.

This study is a case study that investigated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college students after having them use machine translators in a general English class. In this study, university students were allowed to freely use machine translators in listening and speaking classes for one semester, and their experiences and perceptions were investigated using an online questionnaire. The results showed that most of the students used translators to search for unknown expressions when preparing discussions during class and writing scripts for the oral exam outside the classroom. There were only a few students who did not use the translator at all.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tudents' grammar scores assessed by Grammarly depending on the degree of using the translator. About 80% of students were satisfied with the experience of using the translators in class. More than two-thirds of students agreed to use translators in class. Students actively used the translator to learn English, and the translator positively helped learners learn English. Rather than outright banning students from using translators, it may be better to teach how to use a translator so that students can use the translator properly as a learning tool to increase the learning effect.

[translator/English composition/learner experience & perception/listening & speaking, 번역기/영어 작문/학습자 경험과 인식/듣기와 말하기]

Ⅰ. 서론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며 수업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전통적인 교실

* 이 논문은 서울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2023-0034).

수업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이나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 실시간으로 이루어졌고,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교육의 변화가 가능했던 핵심 동력은 바로 컴퓨터와 스마트 폰으로 구현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김주혜 외, 2022). 교육 환경과 매체의 변화는 기존의 교수학습 방법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온라인 교육의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 이제는 이를 제외하고 미래 교육을 구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언어교육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김주혜 외, 2022). 이미 기계 번역, 챗봇,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언어 학습이 소개되었으며,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교육관련 프로그램들과 앱의 개발로 교수 및 학습 방법도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김지은, 2022). 이와 같은 온라인 학습 도구는 학습자의 수업 참여를 촉진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영경, 2022).

과거에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외국어를 직접 배워야 했다. 그러나 번역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는 굳이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김은영, 2021). 덕분에 언어 장벽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번역기의 성능은 기계 학습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김주혜 외, 2022). 초기에는 자연언어의 문법 규칙을 기반으로 한 번역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규칙 기반 기계번역(Rule-based Machine Translation)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다량의 코퍼스를 사용하여 예제를 기반으로 한 유사도 혹은 확률과 빈도가 높은 것을 제시하는 코퍼스 기반 기계번역(Corpus-based Machine Translation)이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발전으로 딥러닝(Deep Learning)과 인공 신경망(Neural Network)을 적용한 방식으로 기계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덕분에 번역기의 품질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또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번역에서 나아가 핸드폰의 카메라앱을 이용해 번역하기를 원하는 텍스트를 사진으로 찍으면 원하는 언어로 번역이 되는 서비스도 시작되어 번역기는 일상은 물론 교육현장에도 빠른 속도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어 학습에서 번역기와 관련된 연구가 급증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번역기와 관련하여 번역기 기술의 강점과 한계, 번역기를 사용하는 학습자의 인식과 태도, 교실수업에서 번역기를 사용한 효과, 번역기를 활용한 교수 방안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0년 초반에는 번역기를 사용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후에는 번역기의 사용 여부보다는 어떻게 번역기를 사용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연구의 초점이 옮겨갔다(김성우 외, 2019). 기술의 수준이 발달하게 되면 그 기술은 자연스럽게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에 관한 연구로 관심이 이동하기 마련이다. 최근에는 수업 시간에 번역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e.g. 김남희, 2022; 마선미, 2022; 심창용, 2022; 이상민, 2019; 정남숙, 2021; 정미애, 2020)가 주로 수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대부분

은 영작문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학생들의 번역기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조사하거나 그 경험에 대해 알아본 연구(e.g. 김남희, 2022; 이상민, 2019; 임희주, 2017), 학생들에게 번역기를 사용하게 한 후 번역기를 사용하기 전과 후의 결과물을 비교한 연구(e.g. 김경란, 2020; 김은영, 2021; 노유수, 2021), 번역기와 사전 사용의 차이를 알아본 연구(e.g. Chon & Shin, 2020) 등이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선행 연구는 학생들이 반드시 번역기를 사용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실생활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번역기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차이가 있다. 또한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한글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통째로 번역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번역기는 문장 번역에도 사용하지만, 모르는 어휘나 표현을 찾거나 문법을 점검하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그러므로 한글 통 문장을 번역기에 넣어 영어 출력물을 얻게 하는 방법으로는 학습자들이 번역기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수업 시간과 수업 외 시간에 번역기를 어떻게 사용하는 지를 살펴보고 번역기를 사용한 경험과 번역기 사용과 관련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첫째, 기존의 연구는 주로 영작문 수업에서 번역기 사용에 관해 살펴본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교양영어 듣기와 말하기 수업 중에 번역기를 사용하게 하여 그 양상을 살펴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검색을 하는 일상 생활에서처럼 학생들이 수업 중 모르는 표현을 원하는 때마다 자유롭게 찾아보게 한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 외 시간에 수업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번역기를 사용하는지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나 표현을 검색할 때 번역기는 물론 사전이나 인터넷 포탈 사이트 검색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양상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연구 문제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양영어 듣기와 말하기 수업 중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때, 대학생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둘째, 수업 외 시간에 말하기 시험 대비 영어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영어로 표현하기 어렵거나 모르는 표현을 어떻게 작성하였는가?

셋째, 영어 듣기와 말하기 수업 시간에 번역기를 사용한 경험과 수업 시간에 번역기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번역기와 언어학습

기계 번역기 사용은 일상생활부터 영어 학습까지 다양한 곳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행이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활동 등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잦아지면서 번역기의 사용은 더욱 증가하였다. 번역기를 사용한 지는 벌써 50년이 넘었지만 언어 학습에서 본격적으로 번역기를 사용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이다. 번역기는 과거 지류 사전, 전자사전 등이 차지했던 위상을 대신해 어느새 외국어 학습의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를 공부할 때 번역기를 온라인 사전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Chon & Shin, 2020). 언어 수업에서 번역기는 모르는 어휘나 표현을 파악하거나, 문장구조를 점검하고, 원어민 발음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김주혜 외, 2022).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의 90%이상이 번역기를 이미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평균 3-4년 정도 사용한 경험이 있다(노유수, 2019; 마선미, 2022; 이상민, 2019). 번역기가 더 빈번하게 사용됨에 따라 앞으로는 더 이른 나이부터 번역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번역기 중 한국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네이버 번역기인 파파고이며, 이어 구글 번역기와 카카오 번역기 순으로 사용 빈도가 높았다(김경란, 2020; 정미애, 2020; 황요한 외, 2020).

번역기에 대한 연구 초기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된 경향이 있었다. 특히 학습자들이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교수자들이 많았다. 기계 번역이 학습자의 능력을 왜곡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나 표절을 쉽게 하게 하며 언어 학습을 방해한다고 생각했다(Prichard, 2008). 학생들이 모국어로 원하는 문장을 쓰고 출력된 결과물을 그대로 붙여 과제를 제출하는 게으른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다(Van Praag & Sanchez, 2015). 번역기의 성능이 빠르게 좋아지고는 있지만, 일상 언어나 문학 작품의 번역에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오류가 많은 편이다(황요한 외, 2020). 그래서 번역기를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번역기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 번역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고 학습자들은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번역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번역기의 사용이 증대함에 따라 번역기의 효과와 학습자 인식에 대한 연구가 최근 10여 년 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외국어 학습자들은 번역기를 주로 철자, 문법, 읽기, 어휘 등에 사용했는데, 어휘를 찾거나 확인할 때 번역기를 가장 자주 사용했으며, 문법의 오류를 확인하는 데에는 비교적 적게 사용하였다(Alhaisoni & Alhaysony, 2017; Chandra & Yuyun, 2018). 번역기는 언어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지적, 초인지적 그리고 정의적 측면에서도 학습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Niño, 2009). 학습자들은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이 외국어를 학습할 때,

특히 제2 언어로 작문을 할 때 도움이 된다고 했다(Alhaisoni & Alhaysony, 2017; Garcia & Pena, 2011; White & Heidrich, 2013). 번역기를 사용하면 학습자는 새로운 어휘를 접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 문법을 익히고 번역 결과를 통해 자신의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쓰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O'Neill, 2016). 외국어 학습에서 '주목하기(noticing)'는 학습해야 할 언어 요소에 주목하고 주의를 집중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깨닫고 배우도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Wong & Lee, 2016). 번역기를 사용하는 학습자들은 번역 결과물에서 미쳐 알지 못했던 단어와 표현들을 접하게 됨으로써 이것을 익히게 된다. 제 2언어 수업에서 번역기를 사용하면 개별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어 학습자들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다(Bernardini, 2016).

영어 학습이나 과제를 할 때, 이미 많은 학습자들이 번역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학생들은 빠른 속도로 새로운 프로그램에 적응하고 학업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번역기를 쓰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번역기를 못쓰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판적으로 번역기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고 효과적으로 분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Briggs, 2018; Niño, 2009). 번역기가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번역기를 사용하면 학습자들의 불안감도 낮아져, 학습자들은 더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에서 학습을 할 수 있다(Niño, 2009). 한국과 같은 경쟁적인 교육 환경에서는 영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수준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Briggs, 2018)고 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번역기와 언어 학습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서 번역기 사용 연구 사례

초기 번역기 관련 연구는 주로 번역 오류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번역기를 사용하는 학습자나 교수자를 대상으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거나 번역기를 수업에 적용한 후 사례를 분석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습자를 대상으로 번역기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번역기 사용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와 영작문 수업에서 번역기를 활용한 사례에 관한 연구로 나뉜다. 이미 많은 학습자들이 영어를 학습할 때 번역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번역기 사용에 대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다(e.g. 김경란, 2020; 김남희, 2022; 김은영, 2021; 이종은, 2020; 임희주, 2017; 정남숙, 2021; Lee, 2020). 아직 번역기의 성능이 크게 발달하기 않았던 때에 대학생의 번역기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임희주(2017)의 연구를 보면 이미 고등학교때부터 번역기를 사용해 영작문을 할 때 필요한 표현을 찾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초급 수준인 학생들은 번역기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번역기가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번역기를 사용하면 영작 시간이 줄고, 영어 문장구조 사용 능력이 향상되며, 내용을 더 잘 전달 할

수 있고, 번역 결과물에 확신을 가지게 되어 자신감이 증대한다고 느꼈다(김남희, 2022; 김은영, 2021). 번역기를 사용하여 문법보다 글의 내용이나 논리 구조를 조직화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으며 작문의 질이 높아졌다고 한다(이상민, 2019; 이종은, 2020; Lee, 2020).

학생들은 번역기에 오류가 많다고 평가하면서도 계속 사용하겠다는 상충되는 태도를 보였다(김경란, 2020; 김남희, 2022; 이상민, 2019; Briggs, 2018). 경쟁 위주의 한국의 교육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비록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이 학습에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부족한 실력을 보충하고 상대 평가에서 더 높은 학점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번역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Briggs, 2018). 하지만 학생들은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이 영어로 글을 쓰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번역기가 영작 실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에는 회의적인 입장이었다(이종은, 2020; Lee, 2020).

최근 연구들을 보면 학생들이 영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이 이미 대세이다. 학생들은 번역기는 해로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김경란, 2020). 그래서 아예 수업 시간에 번역기를 사용하게 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영작문을 가르칠 때 반별로 번역기와 온라인 사전을 사용하도록 구분하여 각각의 효과와 학습자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이종은, 2022), 번역기를 사용하여 작문을 수정하게 한 결과를 분석한 연구(김은영, 2021; Lee, 2020), 애초에 번역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번역기 친화적인 문장을 만드는 pre-editing 연구(심창용, 2022) 등 다양하다. 외국어 학습뿐만 아니라 교실 안팎의 다양한 상황과 목적에서 번역기를 써 본 학생들은 어떻게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이 번역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답도 경험적으로 터득해 가고 있었다. 학생들은 번역 결과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을 찾거나 모국어 원문장을 바꾸어 여러 차례 번역을 해 보는 방법을 사용하거나(임희주, 2017), 번역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절한 형태로 한국어 문장을 가공하여 번역기에 투입하거나 전체 문장보다는 일부분을 먼저 번역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김남희, 2022). 그런데 대부분의 번역기와 관련된 연구가 영작문 수업에서 사용한 경험을 연구한 것과 달리 정남숙(2021)은 영어 프레젠테이션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번역기를 사용한 경험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말하기 수업에서 번역기를 허용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가자

본 연구에는 서울 소재의 한 여자대학에서 신입생 필수 수강 과목인 교양영

어 듣기와 말하기 중급 과정의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연구자인 교수가 직접 가르치는 같은 과목의 두 개의 다른 분반에 속한 참가자의 수는 각각 24명과 27명이다. 참가자들의 전공은 다양하지만 모두 인문계열(어문계열 학과, 언론영상, 사회복지, 사학과 등)이다. 본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의 사전 영어 실력은 토익 형식으로 구성된 신입생 레벨테스트 결과로 파악하였다. 교양영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모든 신입생들이 1학기 시작 전에 온라인 레벨테스트 시험을 봐야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 중, 하로 지정된 레벨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레벨테스트는 토익 시험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개별적으로 지정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험을 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수강생은 총 51명이지만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4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평균 토익 점수는 540점(표준편차: 50.16)이며 가장 낮은 점수는 445점이고 가장 높은 점수는 620점이다.

2. 연구 도구

두 분반의 커리큘럼은 영어 듣기와 말하기 학습을 중점으로 하고 문법 및 어휘도 학습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구성되었고, 동일한 방법으로 가르쳤다. 전체 수강생 51명 중 3명이 설문 조사를 하는 날에 결석하여 설문조사에는 총 48명의 학생들만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설문조사에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묻는 문항에 “예” 라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는데, 조사 당일 출석하여 설문에 응한 학생들 모두 연구 참여에 동의하여 48명의 설문결과를 모두 연구에 사용하였다.

수업 시간에 번역기를 사용하는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첫 수업 시간에 번역기, 사전 등의 검색 방법과 유의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한 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학생들은 수업 중 토론이나 발표 준비를 할 때 개인 노트북, 태블릿, 핸드폰 등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었다. 수업 외 시간에 번역기를 사용한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8주차에 실시된 개별 말하기 시험 때 제출한 스크립트를 작성한 것에 대해 묻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말하기 시험은 일대일로 이루어졌는데, 교수자가 유형별로 2문항씩 무작위로 선정하여 질문하면 학생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말하기 시험은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토론 주제 중 단답식(Short-answer questions) 6문항과 의견 묻기(Opinion questions) 5문항을 시험 2주 전에 공개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작성한 스크립트를 만들어 연습하게 했다. 스크립트는 시험 전날까지 LMS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시험 당일 출력하여 제출하였으며, 시험을 볼 때 답하는 내용이나 표현이 미리 업로드한 답변자와 달라도 감점되지 않았다. 말하기 능력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의 내용 적절성, 전달력, 유창성 및 문법 및 표현 정확성의 4가지 항목별로 각 5점 만점, 총 20점 만점으로 평가되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스크립트 작성시 번역기를 사용한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말하기 점수 중 내

용 적절성 및 문법 및 표현 정확성 점수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스크립트를 Grammarly[1] 웹사이트에 업로드해 산출된 평가 점수도 채점 결과 지표의 하나로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핵심인 번역기와 관련된 설문 조사는 14주 Review 수업 시간 중 LMS에 업로드 된 설문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기존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맞게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수업 관련 질문, 검색 방법 관련 질문, 그리고 번역기 관련 질문으로 객관식 10문항과 주관식 4문항으로 모두 총 14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결과는 SPSS 25로 분석하였다.

3. 연구 절차

연구 참여자들이 수강한 영어 수업은 1학년이 신청하는 교양 필수 수업이다. 영어 듣기와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 수업으로 어휘와 문법도 포함하여 전반적인 영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되었다. 수업은 75분씩 일주일에 두 번 대면으로 진행되었는데, 수업 내용 중 말하기 활동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토론으로 교과서 수업을 할 때 교재에 있는 듣기 학습을 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토론 주제 2~3가지를 제시하여 그룹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토론 시간은 매 수업 시간마다 15~20분 정도 배정하였는데, 먼저 문제를 제시하고 혼자 답을 생각하고 필요한 표현을 찾으며 준비하는 시간을 3~4분 정도 주고 그룹으로 각 질문에 대해 의견을 10~12분 정도 나누게 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몇 명을 지목하여 답을 발표해 보게 하였다. 토론 시간에는 중요 표현이나 잘 모르는 표현을 검색해 간단하게 필기하라고만 하고, 전체 답을 문장으로 쓰게 하지는 않았다.

다른 하나는 교과서 외에 특별히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특별히 구성된 Discussion and Presentation 수업(이하 D&P 수업)으로 2~3주에 한 번씩 한 학기 동안 총 6번 실시되었다. D&P 수업은 주어진 주제와 관련해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연습한 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6가지 주제에 대해 영어로 글을 쓰고 발표하는 수업을 했는데 수업은 매 차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주제와 관련된 듣기를 듣고 어휘를 익히고 문제를 풀어본 다음 그 질문을 짝과 함께 묻고 답하는 활동을 한다. 그리고 샘플 스크립트를 참고하여 짝과 함께 대화한 내용에 세부 사항을 더해 발표용 스크립트를 20분 정도 각자 작성한 후 완성된 글을 그룹으로 발표하였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하나 이상의 질문과 피드백을 했고, 그룹 활동 후 전체를 대상으로 3~4명이 발표를 하였다. 학생들이 글을 쓰고 발표를 하는 동안 교수는 돌아다

[1] Grammarly (www.grammarly.com)는 크로스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글쓰기 보조도구로,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철자, 문법, 구두점, 명확성 등을 식별하고 평가한다.

니며 학생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작성하는 글을 살펴보고 피드백을 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토론 시간이나 D&P 수업 시간에 필요한 경우 인터넷 검색 및 온라인 영어 사전, 번역기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온라인 학습을 하며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대면 수업 시간에도 핸드폰은 물론이고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을 함께 사용하였다. 학생들은 이미 중, 고등학교 시간에 이러한 도구들을 모두 사용했으며 실생활에서도 이러한 도구들을 자주 사용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바로 검색이 가능한 방법을 굳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학습의 기회를 뺏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이러한 도구들을 잘못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학기 초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단어나 표현 등을 사전이나 번역기로 찾아보는 것은 괜찮지만, 한글로 내용을 작성하고 통째로 번역기에 넣어 문장을 만들어 내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알려주었다. 영어를 배우는 수업이므로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보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여 말하였다. 또한 번역기의 문장에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결과물을 읽어보고 검토 및 수정을 하도록 지도했다. 학기 초에는 처음부터 한글로 모든 문장을 쓰고 그걸 전부 번역기에 넣어 번역하려는 시도를 한 학생도 2~3명 있었지만, 주의를 주고 가급적 영어로 쓰고 필요한 경우에만 번역기를 사용하게 안내하였다.

Ⅳ. 결과 및 논의

1. 수업 시간 중 번역기 사용

학생들의 번역기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수업 시간에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표현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 했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1에 제시된 방법을 네 가지 선택지로 주고 이 중 주로 사용한 방법을 최대 2개까지 고를 수 있게 하였다. 응답은 다중 응답 빈도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표 1
수업 중 모르는 표현 발생시 주요 대처 방법 응답

방법	응답 인원(명)	비율(%)	케이스 중 비율(%)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였다	44	68.8	91.7
다른 단어를 사용하였다	8	12.5	16.7
교수님께 여쭤보았다	7	10.9	14.6
친구에게 물어보았다	5	7.8	10.3
합계	64	100.0	133.3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인터넷 검색을 한다고 답변한 응답한 사람이 44명으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네 가지 방법 중 인터넷 검색이 차지한 비율은 68.8%였고,

이중 응답 전체 케이스를 기준으로 계산한 케이스 중 퍼센트 비율로는 91.7% 였다. 이어 다른 단어를 사용하거나 교수님께 여쭤보았다는 답변이 있었고 친구에게 물어보았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을 한 학생 4명 중 2명은 교수님께 여쭤보았다고 답했으며 다른 2명은 각각 다른 단어 사용과 친구에게 물어보았다고 답하였다. 수업 중 모르는 영어 표현의 뜻을 인터넷으로 찾아 본다고 응답한 44명의 학생들이 다른 방법도 같이 사용했는지를 알아 본 결과, 6명은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인터넷 검색과 더불어 하거나 교수님 혹은 친구에게 묻는다고 한 응답자가 각각 5명과 4명 있었다(표 2 참조). 하지만 절반 이상인 29명이 주로 인터넷으로만 검색했다고 답했다.

표 2
'인터넷 검색' 응답자(44명)의 다중응답

방법	응답 인원(명)	비율(%)
인터넷 검색만 하였다	29	60.4
인터넷 검색 + 다른 단어를 사용하였다	6	12.5
인터넷 검색 + 교수님께 여쭤보았다	5	10.4
인터넷 검색 + 친구에게 물어보았다	4	8.3
합계	44	91.7

이처럼 모르는 영어 표현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지만, 이제까지 수행된 연구에서는 대개 학생들의 번역기 혹은 사전 사용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검색하는지는 연구된 바가 없다. 그러나 수업 중 관찰한 흥미로운 사실은 학생들은 번역기도 사용하지만, 많은 경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를 모를 때에 네이버나 다음 포탈 사이트 검색창에 한글로 원하는 내용을 모두 입력하여 검색해 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취한다'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를 모르면 학생들은 포탈 사이트 검색창에 한글로 "자취하다 영어표현"을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법을 무척 자주 사용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을 관찰한 결과를 반영해 표 3에 적힌 4가지 방법을 선택지로 만들고 이를 활용해 학생들이 어떻게 인터넷으로 그 표현을 검색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표 3
주로 사용한 인터넷 검색 방법

방법	응답 인원(명)	비율(%)
네이버 혹은 다음 포탈 검색창에 입력	15	31.3
사전이나 번역기 웹사이트	8	16.7
영어 사전 앱	12	25.0
번역기 앱	13	27.1
합계	48	100.0

응답을 분석해 보니 포탈 사이트, 앱, 혹은 번역기를 사용한다고 한 응답자의

수가 비슷했지만, 가장 많은 학생들(15명)이 포탈 검색창에 한글 뜻을 입력해 모르는 영어 표현을 검색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수업 시간에 자주 관찰된 다수의 학생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또한 학생들은 앱을 다운 받아 사용하기도 했지만, 포탈 검색창에 '영어사전'이나 '번역기'라고 입력하여 해당 웹사이트를 검색해 단어를 입력하는 방법도 사용하였다.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사전이나 번역기 앱을 설치하였는데, 이용 빈도는 사전이나 번역기나 약 30%로 비슷했다.

추가로 선호하는 번역기와 사전 앱을 물어보았다. 가장 선호하는 번역기로 네이버 파파고라고 답한 응답자는 40명이며, 나머지 8명은 구글 번역기라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기존 연구(e.g. 김경란, 2020; 정미애, 2020; 황요한 외, 2020)에서 조사한 바와 동일하다. 연구 참가자 중 43명이 네어버 영어 사전앱을 설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드물게 다음 영어 사전 앱을 설치했다는 참가자도 5명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우리나라 포탈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며 우리나라에서 만든 번역기와 사전 앱을 절대적으로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을 허용하여 수업 중 토론이나 D&P 시간의 발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91.7%(44명)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특히 수업 시간에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이 어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어보니 절반 정도가 '말하기'라고 응답했고 이어서 '어휘'와 '쓰기' 순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표 4 참고).

표 4
수업 중 인터넷을 사용해 가장 도움을 받은 영역

영어 능력	응답 인원(명)	비율(%)
듣기	4	8.3
말하기	23	47.9
읽기	4	8.3
쓰기	6	12.5
문법	3	6.3
어휘	8	16.7
합계	48	100.0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가 듣기와 말하기 수업 시간 중 토론이나 발표 시간에 번역기를 사용하게 한 결과이므로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으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번역기가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번역기는 언어 학습 뿐 아니라 인지적, 초인지적, 그리고 정의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Niño, 2009). 영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데 질문을 미리 주고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주자 그동안 모르는 표현을 검색해 미리 준비하게 하자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영어로 말하는 두려움도 줄어들고 자신감도 생기

고 마침내 토론 시간이 즐겁다고 응답한 학생도 있었다. Briggs(2018)의 연구 결과에서도 번역기가 부족한 말하기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사소통에 집중하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도 번역기는 학생들의 말하기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학기 초에는 영어로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 그룹으로 말하는 활동 시간도 주어진 시간보다 빨리 끝내고, 작은 목소리로 소극적으로 발표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기가 진행될수록 토론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토론 시간에 말하는 횟수와 시간도 늘어났으며, D&P 수업 과정이 익숙해질수록 점점 더 내용을 잘 작성하고 발표도 자신감을 가지고 유창하게 하게 되었다.

2. 수업 시간 외 번역기 사용

수업 시간과 수업 외 시간에 번역기를 사용하는 데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말하기 시험 준비를 할 때 번역기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모든 연구 참가자들이 말하기 시험용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했지만, 번역기를 사용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44명(91.6%)이고 4명의 학생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표 5에 정리된 번역기를 사용한 정도를 보면, 대다수가 절반 이하의 문장을 번역기를 사용해 작성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응답한 결과이므로 실제 번역기를 더 많이 사용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려와는 달리 번역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은 번역기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필요에 따라 번역기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
말하기 시험용 스크립트 작성 시 번역기를 사용한 정도

번역기 사용 정도	응답 인원(명)	비율(%)
전부	1	2.1
절반 이상	6	12.5
절반 정도	14	29.2
일부	23	47.9
사용하지 않음	4	8.3
합계	48	100.0

번역기를 사용한 정도에 따라 성취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스크립트를 Grammarly 사이트에서 채점한 점수와 교수가 채점한 점수 중 내용 적절성과 문법을 포함한 점수를 일원분산분석으로 비교하였다. 번역기를 사용한 정도에 따라 Grammarly 점수는 유의하게 차이가 났는데, 번역기를 많이 사용한 집단이 Grammarly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표 6참조). 하지만, 교수가 직접 평가한 결과에서는 번역기를 사용한 정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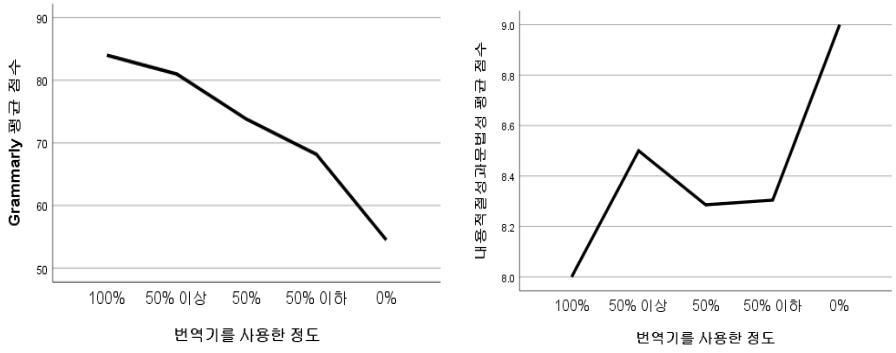
표 6
번역기 사용 정도에 따른 스크립트 평가 방법별 평균 점수 비교

평가 방법		번역기 사용 정도				
		100 %	50% 이상	50%	50% 이하	0%
	빈도	1	6	14	23	4
Grammarly	평균 (표준편차)	84.00	81.00 (10.86)	73.79 (10.75)	68.17 (15.64)	54.50 (19.12)
	F(*p*)	2.686(.044*)				
교수	평균 (표준편차)	8.0	8.50 (1.37)	8.29 (1.32)	8.3 (1.29)	9.0 (1.28)
	F(*p*)	.289(.883)				

*p <. 05

이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보니 흥미로운 양상이 보였다. 그림 1의 그래프 중 왼쪽 것은 번역기를 사용한 정도로 나눈 집단별 Grammarly 채점 결과의 평균 점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오른쪽 것은 교수가 채점한 점수의 평균 점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번역기를 100% 사용한 학생은 Grammarly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교수 평가 결과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번역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은 비록 Grammarly 채점 점수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교수자로부터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 1
번역기 사용 정도에 따른 Grammarly 평가 점수와 교수 평가 점수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Grammarly와 교수자의 평가 준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Grammarly는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인지를 평가하기 보다는 문법에 맞는 표현인지, 철자나 구두점에 오류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채점한 반면, 교수는 문법적으로 정확한가도 평가하지만, 사소한 문법적 오류보다는 질문에 답변이 적절한지와 주장과 근거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채점 방식의 차이로 접수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은 문법이나 철자, 구두점 등에서 오류가

적은 문장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내용이나 질적인 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모든 문장을 번역기로 작성했다고 답한 학생은 영어 실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해 영어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고, 학기 초에는 수업 시간에도 한글로 문장을 작성하고 번역기에 넣어 영어 문장을 만들었다. 어휘 및 문법 실력이 많이 부족하니 번역기로 만든 결과물이 적절한 답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스스로 수정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반면 번역기를 전혀 쓰지 않았다고 답한 4명은 영어 실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로 평소에도 눈에 띄게 수업 참여도가 높은 학생들이다. 결국 번역기를 돌려 문장을 만든다고 높은 영어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 가지 살펴볼 점은 Grammarly 평가에서 최고 점수(92점)을 받은 학생의 경우이다. 이 학생은 절반 이상 번역기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단어를 검색하고 문장으로 쓴 다음 모든 문장을 번역기에 넣어서 맞는 문장인지 확인하고 이상한 것은 다시 사전을 찾아보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했다고 대답하였다. 이 학생은 평소에도 학점에 신경을 아주 많이 쓰는 학생인데, 그래서 결과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번역기와 사전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어 실력에 따라 번역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도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스크립트를 채점하는 당시에는 학생들이 번역기를 사용했는지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번역기로 작성됐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번역기 사용 정도와 그 이유를 주관식으로 작성한 결과를 비교해서 살펴보니, 번역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결과물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전부 번역기를 이용해 작성했다고 솔직하게 답한 한 명의 학생과 절반 이상의 문장을 영어로 작성하는데 번역기를 사용한 6명 중 2명의 학생이 번역기를 사용한 이유를 서술하게 한 문항에 영어로 문장을 만들기가 너무 막막하여 번역기를 사용하였다고 답하였다. 나머지 4명의 학생은 번역기를 이용하여 더 좋은 문장을 만들거나 자신이 만든 표현을 점검하기 위해 번역기를 많이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스스로 문장을 만들 수 없어 번역기를 사용한 4명의 학생은 번역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크립트를 잘 작성하지 못했지만, 번역기를 자기 검열 수단으로 활용한 4명의 학생은 스크립트를 잘 작성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3. 번역기 사용 경험과 인식

연구 참가자들은 한 학기 동안 말하기 수업 시간과 수업 외 활동에서 번역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번역기를 사용한 경험에 대해 응답자의 80%(39명) 이상이 번역기 사용이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은 번역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번역기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다지 신뢰하는 편은 아니었다(표 7 참조).

표 7
번역기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 정도

번역기의 정확한 정도	응답 인원(명)	비율(%)
매우 정확하다	0	0
정확한 편이다	8	16.7
보통이다	17	35.4
오류가 있는 편이다	20	41.7
오류가 아주 많다	3	6.3
합계	48	100.0

학생들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모를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자신이 사용한 방법을 자세히 쓰게 하였다. 구체적인 표현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답변은 표 8에 제시된 것처럼 크게 4가지 방법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번역기를 썼다고 응답한 사람은 총 27명으로 이는 전체 응답 비율의 56.3%이다. 단순히 번역기를 사용했다고 답한 학생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적은 학생들도 있었다. 스스로 영어로 글을 쓴 후 번역기에 영어 문장을 돌려 확인하는 검토용으로 사용했다는 학생이 8명, 번역기에 한글을 넣어 영작한 후 출력물이 적절한지 스스로 읽어보고 수정했다는 학생이 5명이었다. 사전을 검색했다는 답이 응답도 많았는데, 번역기와 사전을 같이 사용했다는 학생들도 제법 있었다. 또한 모르는 표현을 자신이 아는 다른 말이나 쉬운 문장으로 바꾸어 작성하는 방법도 사용하였다.

표 8
잘 모르는 영어 단어/표현 영작시 사용한 방법 분석

방법	응답 인원(명)	비율(%)
사전으로 검색	23	33.3
번역기 이용	27	29.2
포탈사이트에서 검색	5	7.2
다른 표현으로 바꿔 작성	14	20.3
합계	69	100.0

번역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려달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자신이 어떻게 번역기를 사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단순히 번역기에 한글 문장을 넣기보다는 더 좋은 번역 결과물을 얻기 위해 각자 나름대로 번역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요령을 터득하고 있었다.

> 한글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고 다시 그 문장을 한글로 변환하여 맞는 표현인지를 확인했습니다. (학생 7)

>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나오는 딱딱한 문체로 말을 바꾼 후 번역기를 돌려보고, 실패할 경우 같은 의미를 갖는 다른 표현을 찾아서 적는다. (학생 9)

> 문장을 쪼개고 불필요한 단어나 문장이 없는지 확인하여 최대한 쉽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뒤에 모르는 단어는 검색하여 작성하고 그래도 애매한 문장은 번역기에 넣어 내가 원하는 내용이 나오는 지를 확인해가며 수정했습니다. (학생 26)

또한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표현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학생들도 여러 명 있었다. 이렇게 응답한 학생들은 번역기의 정확성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번역기를 전적으로 믿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우선 잘 모르는 단어를 사전에 검색해 알아낸 뒤, 대략적으로 문장을 만들어보는 편입니다. 문장의 문법 사항이 헷갈릴 경우 해당 문법 개념을 찾아보기도 하고 파파고를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학생 14)

> 모르는 부분만 번역해보고, 한글 문장 전체를 영어로 번역한 것과도 비교한다 사전에도 단어를 검색해 혹시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닌지 확인한다. (학생 28)

이번 학기 영어 수업 시간에 번역기 사용을 허용한 것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더니, 응답자의 약 80%가 수업 시간에 번역기를 사용하게 한 것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표 9 참조). 반면 부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은 1명에 불과해, 연구 참가자들은 수업 시간에 번역기 사용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영어 수업 시간에 번역기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37명(77.1%)만 찬성을 했고 나머지 11명(22.9%)는 반대를 했다. 번역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만족도와 수업 시간에 번역기 허용에 대한 응답 결과를 교차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대답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hi^2 = 6.680, p = .010^*$)

표 9
수업 시간에 번역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만족도 분석

응답	응답 인원(명)	비율(%)
매우 만족한다	7	14.6
만족한다	32	66.7
보통이다	8	16.7
만족하지 않는다	1	2.1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	0	0
합계	48	100.0

수업 시간에 번역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를 서술하게 하고 그 대답을 살펴보았다. 약 75%인 32명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여러가지 이유를 복합적

으로 언급하기도 했지만 찬성하는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었다. 첫째, 절반에 가까운 20명의 학생들이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이 수업 중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 모르는 단어를 바로 알 수 있고 번역기를 사용해서 도움을 받고 틀린 부분을 알아간다면 그 또한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1)

> 모르는 단어 혹은 어떻게 문장을 써내려 가야할지 막혔을 때, 번역기를 사용해서 직접 해답을 찾아낸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확실히 각인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학습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찬성합니다. (학생 41)

두번째 답변으로는 시작하기 막막할 때 번역기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준다는 대답이 많았다(13명). Wong과 Lee(2016)의 연구결과처럼, 학생들은 스스로 구사할 수 없었던 표현을 번역기를 사용한 결과물을 통해 접하고 익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말하기에 중점을 둔 수업에서는 부족한 말하기 실력으로 힘겨워하는 학생들에게 번역기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사소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Briggs, 2018).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모를 때 번역기를 이용해 적절한 표현을 찾아 사용하고, 자기가 번역한 결과물과 번역기를 사용한 결과물을 비교해 더 좋은 표현을 선택해 사용함으로써 영어 구사 능력이 향상됐고 자신감도 생겼다고 했다.

> 정말 모르는 학생들은 번역기가 없으면 단어를 알아도 문장을 못 만든다. 번역기를 통해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구나를 깨달으면서 실력이 향상된다. (학생 37)

> 생각나지 않는 문법과 단어가 있을 경우 문장 배열이 깔끔하지 않은데 번역기를 활용하면 문장을 깔끔하게 한 뒤 발표를 그나마 막힘없이 할 수 있으며 자신감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번역기 사용을 찬성합니다. (학생 44)

세번째 답변으로 학생들은 번역기를 이용해 모르는 표현을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했다(8명). 수업 시간에 번역기를 사용하면 교수님이나 친구에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바로 찾아 볼 수 있어 유용하다고 한다. 이것은 번역기가 개별 학습 및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는 데 유용하다는 Bernardini(2016)의 연구 결과와 같다. 학생들은 개인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수업 환경에서 개별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번역기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것이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모르면서 들으면 시간 낭비다. (학생 11)

>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찾아야 하는데 번역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교수님께 일일이 여쭈어 볼 수 없으니 번역기를 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학생 30)

마지막으로 소수의 학생들이 말하긴 했지만,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추어 수업이 변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3명). 학생들은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했다. 어린 시절부터 인터넷 검색에 익숙한 학생들에게는 수업 시간에 유용한 도구를 못쓰는 상황이 오히려 어색하거나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 참가자 중 11명은 수업 중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대다수가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 학습하는 게 아니며, 번역기를 쓸 수록 번역기에만 의존하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번역 결과물에 오류가 있어서 쓰기 적절치 않다는 이유와 교수님과의 상호작용이 줄어들게 된다는 이유로 번역기를 사용에 반대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또한 수업 시간에도 쓰면 교실 안과 밖에서 번역기에만 의존하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 번역기가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수업 시간에도 사용하게 되면 번역기를 수업 시간 내, 외적으로 모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역기에 의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학생 46)

> 번역기를 사용하면 그만큼 영어를 학습하는데 노력하고 고민하는 비중이 줄어든다. 단어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문장을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 25)

> 자율 활동에서 쓰는 것은 찬성하나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것은 반대한다. 수업시간에는 교수님이 계시고 최대한 나의 힘으로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생 13)

수업 시간에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모든 문장을 번역기로 작성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학생들은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번역기로 영작을 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비록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였지만, 이들이 걱정하는 목소리에서 번역기와 관련된 문제의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으므로 주목해야 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교양영어 수업 시간에 번역기 사용을 허용하고 우리나라 대학생들

의 번역기 사용 방법과 번역기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작문 수업에서 주로 수행되었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교양영어 듣기와 말하기 수업 시간에 연구 참가자들이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각자 필요한 경우에 원하는 대로 사전, 인터넷 포탈 사이트 검색, 번역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하였다. 또한 수업 시간뿐 아니라 수업 외 과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영어 단어를 모르거나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모를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해결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세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수업 중 모르는 표현이 있을 때, 대다수가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포탈 사이트, 사전, 번역기 등을 비슷한 정도로 사용하였다. 앱을 설치해 사용하기도 했지만, 웹사이트에서 바로 검색하기도 했다. 또한 인터넷 검색과 함께 교수님이나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아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검색을 하지 않고 직접 물어보거나 스스로 해결한 경우도 일부 있었다.

둘째, 수업 시간이 아닌 상황에서 말하기 시험을 대비해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는 모든 학생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였다. 모르는 표현을 번역기를 사용해 작성하였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대다수였으며, 번역기와 함께 사전을 사용한 학생들도 많았다. 연구 참가자들 대다수가 전체 문장 중 절반 이하로 번역기를 사용해 영작했지만, 모든 문장을 번역기로 작성한 학생도 있었다. 반면 비록 소수지만 번역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다. 번역기를 사용한 것이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번역기를 사용한 정도에 따라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의 Grammarly 채점 평균과 교수 채점 평균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번역기를 많이 사용한 학생들이 Grammarly 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교수자로부터는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번역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교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번역기를 사용하더라도 스스로 검토하고 수정한 학생들이 대체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것은 Grammarly가 문법, 철자, 구두점 등에 초점을 두고 평가한 반면, 교수는 내용 적절성과 질문의 질을 더 중요하게 평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이 결코 좋은 점수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번역기를 도구로 잘 활용하려면, 번역기를 사용하는 학습자의 언어 지식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번역기가 있으므로 더 이상 영어 학습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급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도구로써 번역기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어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업 시간에 번역기를 사용한 경험에 대해 약 80%의 학생들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비록 번역기가 정확하지 않고 오류가 있는 편이라는 대답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번역기를 다양한 용도로 자주 사용하였다. 학생들 대다수가 번역기를 사용하기를 원했다. 번역기가 학습에 유용할 뿐 아니라 시작부터 막막할 때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며, 바로 검색을

할 수 있어 편리하고 도움이 되므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번역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학생들은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번역기로 얻은 결과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스스로 배우고 익힌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번역기에 대해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수업 시간에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상과 같이 번역기에 대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사용 양상 및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번역기는 이미 우리 학생들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앞으로 더욱 그 사용이 다양하고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언어 교육적 관점에서 번역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될 때마다 찬반에 대한 논란은 언제나 있었고, 번역기에 대한 논의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바른 해결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불법적으로 음지에서 사용하게 만드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 많은 교수자들이 번역기를 사용해 과제를 하는 것이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그래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Van Praag & Sanchez, 2015). 하지만 수업 시간이 아닌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번역기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결과물로 번역기를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테크놀로지가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 동기와 흥미 유발을 촉진할 뿐 아니라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김지은, 2022). 그러므로 번역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결과물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와 어떤 과제를 내야 번역기로 돌리고 단순히 베껴 내지 않을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과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메타 언어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외국어 학습은 반드시 필요하며, 기계번역을 배척하기보다는 학습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좀 더 효율적인 언어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김주혜 외, 2022). 이를 위해 교육과정이나 과제 작성 등에 적용되는 윤리 의식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평가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기계와 경쟁하기 보다는 기계를 잘 활용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 학기 동안 진행된 특정 수업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로 여기서 밝혀진 내용을 보편화해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와 몇 가지 점에서 차별화하여 수행된 연구로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결과가 발견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바탕이 되어 앞으로 이와 관련된 더욱 심화된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되는 번역기 사용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외국어 학습에서 번역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한 후속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어 21세기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김경란. (2020). 대학 L2 글쓰기에서 번역기 사용은 필요한가?: 타당성에 대한 초급반 학습자의 인식. *디지털융복합연구*, *18*(6), 99-108. https://doi.org/10.14400/JDC.2020.18.6.099

김남희. (2022).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언어 학습을 위한 기계 번역기 활용에 대한 기대.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27*(3), 327-352. http://dx.doi.org/10.22275/SEE.27.3.05

김성우, 장인철, 이정아. (2021). 언어교육에서의 번역기 사용: 신물질주의적 탐색.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24*(4), 163-188. https://doi.org/10.15702/mall.2021.24.4.163

김은영. (2021). AI기계번역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의 방향성–포스트 에디팅 수업사례를 통해. *언어학 연구, 26*(1), 23-42. http://dx.doi.org/10.21291/jkals.2021.26.1.2

김주혜, 김영우, 박광현, 안현기, 원용구, 최정혜. (2022). *인공지능기술 활용 언어교육*. 교육과학사.

김지은. (2022). 영어교육 관련 사회적 인식 변화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테크놀로지 활용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영어어문교육, 28*(1), 107-121. https://doi.org/10.35828/etak.2022.28.1.107

노유수. (2021). 번역기를 사용한 학습이 한국 대학생의 영작 능력에 미치는 영향. *언어과학연구, 99*, 125-143. http://dx.doi.org/10.21296/jls.2021.12.99.125

마선미. (2022). 대학생들의 번역기 사용과 기계 번역의 문제점. *통번역교육연구, 20*(4), 51-65.

심창용. (2022). 인공지능 기반 번역기 활용 교육: Pre-editing. *ESP Review, 4*(1), 85-102.

이상민. (2019). L2 작문수정에 미친 기계번역의 효과성에 대한 한국 대학생 학습자의 인식.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22*(4), 206-225. https://doi.org/10.15702/mall.2019.22.4.206

이영경. (2022). 대학 신입생의 영어학습 양상과 교양영어 수업의 방향성. *영어어문교육, 28*(2), 101-126. https://doi.org/10.35828/etak.2022.28.2.101

이종은. (2020). 온라인 번역기 사용이 대학생의 영작 능력과 영작 능력 향상에 대한 자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 *교과교육학회, 20*(21), 31-49.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21.31

임희주. (2017). 교양영어 수업에서 영어자동번역기 사용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및 태도연구-영작문 수업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1*(6), 727-751.

정남숙, (2021). AI 번역기를 활용한 활동이 대학생 영어쓰기 능력과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24*(1), 134-157. https://doi.org/10.15702/mall.2021.24.1.134

정미애. (2020) 한국 대학생 EFL 학습자의 영어 자동번역기 사용에 대한 인식.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25*(3), 411-438. http://dx.doi.org/10.22275/SEE.25.3.07

황요한, 이제영, 신동진. (2020). 온라인 기계 번역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오류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36*(2), 191-210. https://doi.org/10.18627/jslg.36.2.202008.191

Alhaisoni, E., & Alhaysony, M. (2017). An investigation of Saudi EFL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s the use of Google Translate.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 5*(1), 72–82. https://doi.org/10.5296/ijele.v5i1.10696

Bernardini, S. (2016). Discovery learning in the language-for-translation classroom: Corpora as learning aids. *Cadernos de Traducao, 36*(1), 14-35. https://doi.org/10.5007/2175-7968.2016v36nesp1p14

Briggs, N. (2018). Neural machine translation tools in the language learning classroom: Students' use, perceptions, and analyses. *Jalt CALL Journal, 14*(1), 3-24. https://doi.org/10.29140/jaltcall.v14n1.221

Chandra, S. O., & Yuyun, I. (2018). The use of Google Translate in EFL essay writing. *LLT Journal: A Journal on Language and Language Teaching, 21*(2), 228-238. https://doi.org/10.24071/llt.2018.210212

Chon, Y., & Shin, D. (2020). Direct writing, translated writing, and machine translated writing: A text level analysis with Coh-Metrix. *English Teaching, 75*(1), 25-48. https://doi.org/10.15858/engtea.75.1.202003.25

Garcia, I., & Pena, M. (2011). Machine translation-assisted language learning: Writing for beginners.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24*(5), 471-487. https://doi.org/10.1080/09588221.2011.582687

Lee, S-M. (2020). The impact of using machine translation on EFL students' writing.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33*(3), 157-175. https://doi.org/10.1080/09588221.2018.1553186

Niño, A. (2009). Machine Translation in Foreign Language: Language Learners' and Tutors' Perceptions of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ReCALL, 21*(2), 241-258. https://doi.org/10.1017/S0958344009000172

O'Neill, E. (2016). Measuring the impact of online translation on FL writing scores. *The IALLT Journal*, *46*(2), 1-39. https://doi.org/10.17161/iallt.v46i2.8560

Prichard, C. (2008). Evaluating L2 readers' vocabulary strategies and dictionary use.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20*, 216-231.

Van Praag, B., & Sanchez, H. S. (2015). Mobile technology in second language classrooms: Insights into its uses, pedagogical implications, and teacher beliefs. *ReCALL, 27*(3), 288–303. https://doi.org/10.1017/S0958344015000075

White, K. D., & Heidrich, E. (2013). Our policies, their text: German language students' strategies with and beliefs about web-based machine translation. *Teaching German, 46*(2), 230-250. https://doi.org/10.1111/tger.10143

Wong, T., & Lee, J. (2016). Corpus-based learning of Cantonese for Mandarin speakers. *ReCALL, 28*(2), 187–206. https://doi.org/10.1017/S0958344015000257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Tertiary

오희정(교수)
서울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양영어
01797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21
Email: hjoh@swu.ac.kr

Received: April 7, 2023
Reviewed: May 28, 2023
Revised version received: June 20, 2023